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기세로 우리 앞의 과제들을 담대히 헤쳐 나가, 구민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생활의 만족도와 도시의 신뢰도, 안전한 일상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동시에 복합적 경제위기로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상을 무겁게 하는 현실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올 한해 서초구의회는 민생 안정과 미래 먹거리 준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적재적소의 예산과 조례는 민생 안정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때 쓰이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의회의 역할을 더욱 단단히 세우겠습니다.

양재 AI특구와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청년이 머무는 일자리, 어르신이 안심하는 돌봄, 아이들의 내일을 넓히는 교육·문화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이 당연한 권리가 되도록 재해·재난 대응을 빈틈없이 챙기고, 의회 본연의 책무인 견제와 감시 또한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새해의 출발선에 선 지금,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구민의 신뢰 없이는 의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준엄한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구민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2026년 한해,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아침

서초구의회 의장 **고선제**



5분자유발언

누더기된 부동산 정책, 손 놓은 행정청 주민 피해는 나 몰라라	김지훈 의원
서초구 HPV 백신 지원 확대 제안	박재형 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선 제안	오지환 의원
특정 유명인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재검토 촉구	강여정 의원
스마트 건강도시 서초로의 도약을 위한 제안	이형준 의원
1인가구 천만시대, 실효성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필요	하서영 의원
서초종합체육관 부실운영 관련 구정질문 후 서초구의 후속조치 촉구	강여정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이은경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지원협의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당연직 위원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협력체계의 역할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태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

행사·선거 홍보에 사용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폐현수막의 재활용·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초구의회,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 촉구 결의안 채택



의회는 이형준 의원 이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12월 15일 제 3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서울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예정인 새정아·식유촌·송동마을·우면동성당 일대의 개발 정책은 주민의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존치 방안을 마련하고, 지구 지정 및 후속 행정절차 전반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계획과 집행에 대해서는 재검토와 시정을 요구했다.

이형준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발의 정당성은 주민의 동의와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45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9,41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 확정
구민의 안전·민생·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



의회(의장 고선재)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9,41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9일간의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규정질문을 진행하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의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통·반장 활동비와 AI 계약서류 검토 시스템 등 총 12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 등에는 총 41억 8천만원을 감액해, 삭감된 차액 29억 6천만원을 일반 예비비에 반영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구민의 안전·민생·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안에는 경제도시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스마트 행정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양재 AI특구를 중심으로 한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 조성, 도시환경 조성에는 동광로 도로 확장 및 지중화 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반영됐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과 서리풀노리학교·서초시니어라운지 확충이 포함됐으며, 구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서초 AI전트 고도화 사업’ 등도 담겼다.

박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구민의 목소리가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고 말했다.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규정질문 실시

김성주·박재형·강여정 의원, 각각 나서



의회는 지난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주, 박재형, 강여정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성주 의원은 그간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기해 온 사안에 대해 질문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과 관련해 탄소중립건축 인증제 도입, 공사장 탄소 저감 장비 장려, 요리 매연 저감 사업 활성화 등을 제안하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서리풀지구로의 터미널 이전 제안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개선 및 공단 설립 제안 ▲빗물받이·가로수 전지작업 정비 개선 및 기계화 촉구 ▲체육 시설 예약시스템의 구민 친화적 개편 ▲공사장 쓰리아웃 제도 완화 촉구 ▲전선지중화 관련 기금 설치 및 적극 추진 ▲재건축 기부채납 과다 요구 지양 촉구 ▲현수막 재활용 및 도시미관 개선 ▲사법정의의거리 향나무 관리 계획 등 총 10개 주제를 다뤘다.

#박재형 의원은 피지컬 AI 도입 등 총 4개 주제를 질문했다. 먼저 돌봄 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과 같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하며, 피지컬 AI 장비 도입과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이어서 반려견 놀이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반포·방배 등 도심지역에 시간대 분리 운영·순회형 임시 놀이터 도입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건축 현장의 싱크홀 위험 대비를 위해 지반 상태를 비파괴로 탐지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기술 보완 필요성

을 언급하고, 레미콘 생산을 위해 임시 설치되는 배치 플랜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강여정 의원은 청계산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산지 훼손 사건과 서초종합체육관 위탁 운영의 관리 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청계산 불법 훼손이 2022년 최초 확인 후에도 고발조치 없이 수사외로만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필요한 법적 조치와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초종합체육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 ▲사업장 소재지의 부적정 기재 ▲법인·시설 회계의 미분리 ▲조례상 이용료 상한액 초과 징수 ▲제3차 대관을 통한 영리 운영 ▲감사자료의 과도한 마스킹 등 다수의 관리상 미비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된 업체가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위탁 해지 검토·부당이득 환수·전수조사·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